

기회	2009.1.26.	매체명	경인일보	개제명	5	크기	3cm
제 목	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, 부채농가 신축지원을 위해 경영회생						
담당자	홍지은	부도원	김도원	홍지은	부도원	김도원	강화지사
기회							